

# '우(牛)등생' 한우 보증 씨수소 선발

### 유전능력 탁월 15마리 선발... 지난해 하반기 선발된 소보다 도체중 8.23kg 높아

유전능력이 탁월한 한우 보증씨수소 15마리가 선발됐다. 이번에 뽑힌 보증 씨수소의 정액은 전국 농가에 보급돼 한우 개량을 이끌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 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 2022년 상반기 보증씨수소 15마리를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도체중 유전능력이 2021년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8.34kg 높아 도체중 개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보증씨수소 KPN1489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477, KPN1468, KPN1469가 높았으며, 등삼단면적은 KPN1459, KPN1467, KPN1485가 넓었다. 근내지방도는

KPN1489, KPN1497, KPN1476의 점수가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는 KPN1489, KPN1492, KPN1481이 얇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보증씨수소 가운데 4마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110마리)의 유전능력과 비교했을 때 케이피엔(KPN) 선발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됐다.

2022년 상반기 한우분과위원회에서는 한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근교도(근친 정도) 상승을 막기 위해 씨수소의 아버지와 외조부의 혈통을 고려해 다양한 가계를 선발했다.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의 자세한 정보는 8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액은 8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임기순 과장은 "농가에서 보유한 한우의 유전능력과 축근(가축 무리)의 개량 목표를 고려하여 씨수소를 선택하고 계획 교배하는 것이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이번 선발로 농가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6개월(6월, 12월)마다 이뤄지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림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업체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JB문화공간, 국민가수

### 진성 초창 트로트 콘서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지난 25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진성 트로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통 트로트의 계보를 이어가며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 온 진성은 이번 무대에서 '보릿고개'와 '용산역 광장'을 시작으로 '동진인생', '태클을 걸지마', '울림마', '인동역에서' 등 히트곡들을 통해 관객들과 교감하며 흥겨운 무대를 이어갔다. 마지막 앵콜곡으로 최근 신곡인 '그 이름 어머니'를 열창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JB문화공간 관계자는 "JB문화공간은 전북의 대표문화 공간으로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 서울국제관광전 최우수 기획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본부장 이재욱)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최신 관광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관광박람회로, 주)코트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며, 올해는 다시 만난 여행 다시 만난 자유를 캐치프레이즈로, 대만·괌·스페인·일본 등 세계 40여개국과 기초자치단체 등 총 4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되었다.

국내여행이 다시 꿈틀대며 기지개를 켜고 하늘길도 하나둘씩 열리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조합은 언택트 여행의 성지 '지리산둘레길'을 주요 테마로 부스를 구성, 21개의 볼레길 대형지도도 설치하고 걷기여행과 둘레길 코스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도전을 자극했다.

또한 각 지역별 추천 둘레길 소개뿐 아니라, 지리산둘레길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스왑퍼 이벤트, 지리산으로 가는 길-지역별 포토존 SNS 이벤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관람객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남원=김기우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LX공간정보이카데미에서 2022년 공간정보 해외진출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17개 공간정보 분야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SOC 공간정보 패키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공간정보 디지털화 통한 SOC 시설물 운영 관리 필요"

### LX, 글로벌 공간정보사업 확대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조

글로벌 공간정보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간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SOC 시설물의 운영 관리·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공사)가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LX공간정보이카데미에서 2022년 공간정보 해외진출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17개 공간정보 분야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SOC 공간정보 패키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공간정보 로드쇼의 개선 운영방안, 소규모 사업의 제안 절차 단순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헤르메시스 김순연 대표의 '물리력 분야 공간정보 해외사업 사례' △호정출판사 전우현 사장의 '방글라데시 드론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사례' △이진스 이광세 사장의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주제 발표 및 국내 기

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LX공사 임성하 차장은 SOC 공간정보 패키지사업 발표를 통해 "지상·지하 시설물의 디지털화, BIM(건설정보모델링) 모델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품질 검증 드론·AR·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건설과 운영관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접목될 수 있다"면서 "국내 건설사 등과 협업을 통해 단계별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X공사 최승욱 공간정보사업 본부장은 "개발도상국가의 토지등록과 시공 중심의 해외SOC사업을 K-공간정보를 접목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에 시작된 LX공간정보 해외사업 동반성장 워크숍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동 해외 진출 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 채널이다. /김윤상 기자

## '반딧불이 빛으로 제주 산양리 마을과 한마음 되다'

### 구천동농협, 업무제휴 맺어

구천동농협(양승욱 조합장)은 27일 제주시 한경면에 자리한 산양리 마을과 농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맺었다.

이번 행사에는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과 황순익수석이사(사)를 포함한 임직원 6명과 산양리 마을 유영철 이장 양정일노인회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번 업무제휴협약은 구천동농협과 산양리 마을이 반딧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을주민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각 지역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함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양리 마을은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182가구가 감귤농사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산양리영농이라는 생태숲길이 지난 2월 11일 개장하면서 관광객이 주말평균 1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구천동농협과 산양리 마을을 이어 주는 것은 반딧불이이다. 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인정받은 무주반딧불축제가 있고 산양리 마을도 6월달에 반딧불이가 많아서 올해는

산양리영농에서 반딧불이탐방 프로그램 운영중이다. 이번 행사를 직접 계획한 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은 "지난 3월달에 이곳에 방문했는데, 소위 요즘 말하는

인생살을 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을 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백설공주테마에 모험시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구천동농협에서 생산한 사과를 이곳에 홍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데 오늘 행사로 이어졌다"며 "이곳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주반딧불이사과를 홍보하고 판매를 잘해서 우리 조합원들 소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전주 제3호 수소충전소 구축 '초읽기' 돌입

### 전개공, 충전시스템 업체 선정 계약 협상 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전주지역 제3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을 걸었다. 개발공사는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4개소를 건립해 도내 수소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도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주시와 제3호 충전용 수소충전소(가칭)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사업운전을 시작한 도내 최초 공공발주 1차 2공단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전주시 삼천동의 버스 상탑동의 승용차 충전소 등 각각 1개소,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1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전주 삼천 수소충전소는 전주시 내를 운행중인 수소버스 충전소를 3월에 준공했으며, 5월부터는 수소버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충전을 병행하여 60여 대에 이르는 전주 수소차량들의 충전 여건을 대폭 개선시켰다.

또한 전주시는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제3호 수소충전소의 민간운영사업자를 공모

를 통해 선정했으며, 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충전시스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최종 협상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구축 예정인 전주시 제3호 수소충전소는 하루 최대 수소충전량 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도내 충전소 배치를 지역적 균형 배치를 고려해 전주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담겼다. 지난 2018년 1,800여 대였던 수소차를 2022년 8만1,000대, 2040년에는 6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고, 수소충전소도 2018년 14개소에서 2022년 310개소, 2040년 1,200개소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김윤상 기자

## 식품외식산업 인재 아이디어 발굴·공유

### FIS 활용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농식품부, 8월 한달간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식품외식산업 MZ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FIS를 활용한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품외식산업의 인재 등용문으로 발돋움하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업계 트렌드가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더한 푸드테크 등 '산업융합'인 만큼 식품외식과 무관한 전공자들의 참여도 매년 늘고 있다.

참가자들은 식품외식산업정보(FIS, www.aafis.or.kr)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해 제품개발 연구 또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등의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대체고기, 밀키트 등 식품외식업계 핫 이슈를 대항면의 관심사 시각으로 분석한 논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역대 수상자 중 세종대학교 강덕수, 임성민 학생은 '축산업의 한계를 통해 본 대체육 시장의 가능성'이라는 논문에서 대체육을 활용한 한식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제

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등 논문의 아이디어가 실제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논문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사는 심사를 통해 10여 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 우수상 3편과 장려상 6편은 공사 사장상과 상금 2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차년도 공사 청년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수상작을 엮은 우수논문집을 제작해 식품외식기업에 배포하는 등 우수 아이디어가 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이정 식품산업육성처장은 "올해 대회에서도 중소 식품외식업체가 참회할만한 MZ 세대만의 아이디어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경진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외식산업정보(www.aaf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공사 식품기획정보부(061-931-0714, 0718)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용진농협, 라이브커머스로 완주 로컬푸드 판매

### 김부각·비스코티 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용진농협(조합장 정원철)은 27일 로컬푸드 1번지 완주산 농산물로 만들어진 김부각, 비스코티, 미숫가루 등의 상품을 각, 이마트 소프라이브를 통해 할인판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4월에 문을 열어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시작'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 전국 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얼굴없는 먹을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는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농촌융복합상품을 온라인 판매가 대비 22%~28% 할인된 가격에 배송료 부담 없이 진행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확, 포장, 가격결정, 진열 판매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로컬푸드는 소비자들과 생산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